

국내 최고 농정전문가에서 전북 산업 지도 바꾼 경제전문가로

김종훈 전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33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걸여온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6월 3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퇴직했다.

김 전 부지사는 공직자로서 도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4년여간 전북도 경제부지사로서 헌신적인 자세로 전북의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내기 위해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일해왔다.

1967년 전북 진안 부귀 출생인 김 경제부지사는 진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 전주에 와서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 이후 지난 33년여 동안 국가 행정과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농정과 전북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고향 전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 4년여간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헌신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인 약 29년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낸 그는 과장과 대변인 식량정책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제57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공직근무 기간 동안 정책 기획 능력과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정통 관료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기간 동안 농정 분야에서 굵직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정비했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만성적 문제인 쌀값 안정화에 천착하여 쌀값 안정 시스템 구축과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2022년 7월에 민선 8기 전북도지사에 당선된 김관영 도지사에 의해 경제부지사로 발탁돼 전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나섰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북의 산업 구조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전북 산업의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경제부지사 재임 기간 동안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두며 전북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북 새민금 일원에 이차전지와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지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확대하며 전북 경제의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챔피언대회로 위촉될 수 있었던 전북의 패배의식과 좌절된 분위기를 대회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며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종훈 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심어 놓은 산업의 씨앗들이 훗날 큰 나무로 자라 전북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을 늘 김관영 도지사를 보좌하는 '든든한 서포터'라고 표현했던 그는 "화려한 성과보다 묵묵한 실천을 앞세우며 전북 발전을 위해 험 없이 달려왔다"는 평을 듣는다.

국가와 전북을 위해 헌신하고 지난 33년의 공직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충실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진안 부귀의 어머니 집을 자주 오가며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훈 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의 지난 4년간의 헌신적인 자세로 일한 발자취는 단순한 행정 경력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과 전북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역사였다.

그가 남긴 전북의 산업 기반과 성장 전략은 앞으로도 전북 발전의 든든한 자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의 33년 공직 인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진정한 공직자가 걸여온 모범적인 길로 전북 도민들의 뇌리에 "최선을 다한 참 공직자"의 전명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01만호 기자

취임 축하 화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



박정규 도의회 제2부위원장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제2부위원장으로 취임

한 박정규 의원(임실)이 취임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며 나눔 행보에 나섰다.

박정규 부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제2부위원장에서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관계자들에게 축하 화분을 전달했다.

박정규 부의장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축하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화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1만호 기자



김성수 도의회 문안위원장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성수 의원(고창)이 취임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3일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실에서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축하 화분을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취임을 축하해주신 마음을 저 혼자 간직하기보다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전북은행 김성수 부장, 무주군 명예군민 선정

전북은행은 김성수 마케팅기획부장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무주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금융 편의 증진, 지역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읍 출신인 김 부장은 재직 기간 행정기관 관계자와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특히 KBS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에 출연 중인 최대철의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며 제도 홍보와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 무주=손홍기기자

정읍시, 초산교 사거리 교통 환경 개선 완료



정읍시가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컸던 초산교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구조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가운데 하나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2023년부터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차로와 가깝게 붙어 있던 횡단보도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다시 설치했다. 실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도로 가장자리에 안전 울타리를 세워 무단횡단을 막았다. /정읍=김태환 기자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무주서 '착한 한끼 나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와 함께 7월 3일 세 번째로 무주군 예천문화관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전문봉사와 따뜻한 한 끼가 제공되는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아침부터 무주군시니어클럽에서 모여든 많은 어르신들이 10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귀반샤 풍선아트, 디퓨저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썬캡, 사진촬영 등 각 분야마다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부스를 체험했고, 무주의료원 등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혜택도 받았다. 또 리듬타 Q, 현대관 어우름, 주계음우회 등의 전문 공연팀들이 문화 공연을 진행해 무더운 여름 활력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오늘과 같이, 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여러 단체들이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로 "유엔에서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맞게 대한민국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행사를 마쳤다. /01만호기자 · 무주=손홍기기자

지역 인재 정착 도모... 전북인자위, 인력양성협의체 개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인자위)가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지역 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양성기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인자위는 지난 2일 2026년 제2차 인력양성협의체를 열고 지역 인재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캠퍼스종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지역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 함께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이날 각 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기업 채용 수요 발굴, 교육생 모집



정보 공유, 기관별 감사와 교육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 등이었다.

또한 사업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해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아영면, 감자 수확 수익금 이웃돕기에 활용



남원시 아영면(면장 김운자)은 주민들과 함께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아영면은 지난 6월 29일, 면 직원과 남녀의용소방대원, 시 관광시설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홍농장' 감자 180박스를 수확했다.

참고로 '홍농장'은 지역 활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관내 농지소유주(정착군)의 무상임차 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더해져 공동으로 운영 지난 3월 식재 후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됐으며, 아영면은 이번 수확한 감자를 전량 판매해 마련된 수익금 전체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식이 3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은희(익산)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조은희 의원(익산),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윤혜아 의원(비례대표),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강정희 의원(비례대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 교육위원회의 장연국 의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 회와 의정백서' 등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01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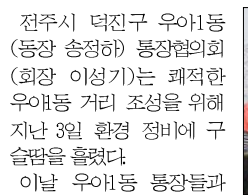
김제시보건소, '올바른 손씻기 체험관'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보건소 옆 호흡기센터 내 '올바른 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관은 관내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손씻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손씻기 필요성과 올바른 손씻기 방법 교육영상 시청, △손세정제(비누)와 형광로션을 활용한 손씻기 전·후 비교 체험,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실습, △손씻기 O/X 퀴즈, △손씻기 포드존 기념촬영,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배부 등으로 운영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주시 유아1동 통장협의회, 환경 정비 구슬담



전주시 덕진구 유아1동(동장 송정하) 통장협의회(회장 이성기)는 쾌적한 유아동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환경 정비에 구슬담을 흘렸다.

이날 유아동 통장들과 주민센터 직원 20여 명은 주택가 골목, 분리수거함 등 청소 취약지를 돌며 쓰레기 줍기, 제조 작업 등을 실시했다.

유아동 이성이 봉우회장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택가와 골목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 사회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아동 송정하 동장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지역민들을 위해 땀을 흘리신 통장협의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본사내방

▲조지훈 전주시장